

## 대만 新정권의 대 중국 관계 개선 정책과 향후 전망

지난 5월 20일 대만의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이후 중국-대만간 주말 전세기운항 개시, 대만 기업의 중국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관련 규제완화, 위안화의 환전 허용 등 중국과의 관계가 빠르게 호전되는 모습

향후 대만경제는 중국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관광수입 증가와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 대중무역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이 가속화되는 한편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대만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중국대만공동시장’ 창설을 추진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협상에서 대표의 명칭과 같은 정치적 쟁점이 돌출할 경우 관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 (대만 신정권 출범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

□ 5월 20일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이후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빠르게 개선

\* 3월 22일 중국국민당 후보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여 민주진보당의 시에(謝長廷) 후보에 압도적인 표차(220만표)로 당선

— 대만-중국 간의 3통\* 중 그간 진전되지 못하였던 본격 항공편 개설(通航)이 실현

\* 通商, 通航, 通信의 직접교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간에는 대만, 중국의 일부지역에만 이를 허용하는 소3통에 그쳤음

○ 6월 13일 대만과 중국 간 민간차원에서 관광목적의 전세기 운항에 합의

- 7월 4일부터 매주 주말(매주 금요일~월요일) 전세기편을 4일간 왕복 18편 운항\*하기로 합의

\* 중국에서는 상하이(浦東) 등 5개 공항을 먼저 개방한 후 중칭(重慶) 등 내륙 부까지 개방할 예정이며 대만은 타오위안(桃園) 등 8개 공항을 개방할 방침

- 또한 정기 직항노선의 조기실현, 화물 전세기의 3개월 이내 취항을 목표로 협의하기로 합의(6월 13일)하는 한편 7월 7일에는 최초로 중국 항공회사(中国东方航空)의 대만지점 설립도 허가

— 대중 투자 규제의 완화, 위안화의 환전 허용 및 중국인의 방문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

- 대만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

- 7월 17일 대만기업의 대중투자 상한을 순자산액의 60%(현행 40%)로 확대하고 대만에 본부를 둔 대만 기업 및 외자계 기업 자회사의 대중 투자 한도\*를 폐지(8월 1일 시행)

\* 종전까지는 순자산 50억 대만달러 이하 기업은 40%, 50억~100억 대만달러 기업은 30%, 100억 대만달러 이상 기업은 20% 이내로 제한

- 홍콩·마카오 시장의 H주, 레드칩에 대한 10% 상한을 폐지하고 대만 금융기관의 홍콩법인 경우 중국 증권회사 출자도 인정(8월 1일 시행)

- 또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 투자도 올해 하반기까지 허용할 방침

- 7월말에는 중국 본토의 QDII(적격국내기관투자가)에 의한 대만 시장에의 투자를 허용(한도는 337.5억 대만 달러(약 1조 1,252억원))

- 대만은 현재 본토 기업\*의 대만 주식시장 상장을 불허하고 있으나 향후 중국 본토 등기 기업 이외에는 허용한다는 방침

\* 현재 ① 본토에 회사를 등기한 기업 ② 본토 자본이 20% 이상 출자한 외국 기업 ③ 자본의 40% 이상을 본토에 투자한 기업 ④ 해외에서 등기된 본토기업이 100% 출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대만 주식시장의 상장을 불허

- 6월 30일에는 대만 전 지역에서 위안화의 대만 달러로의 환전을 허용(7월 1일 시행)\*

\* 1회에 1인당 2만 위안 한도, 중국 본토에서는 푸젠(福建)성에서만 허용

- 또한 종전까지 영업, 유학 등의 목적에 한하여 1일 1,000명 이내로 제한해오던 중국인의 대만 방문객수도 3,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마 총통 취임 4년차까지 10,000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

#### 대만 신정권의 대중국 경제교류 및 규제완화 조치

| <기실시 내지 실시 근접>                                                                    |                                                                          |                                                                                 |
|-----------------------------------------------------------------------------------|--------------------------------------------------------------------------|---------------------------------------------------------------------------------|
| 상호교류                                                                              | 규제완화(중국 → 대만)                                                            | 규제완화(대만 → 중국)                                                                   |
| 주말 전세기편 운항(금~월요일)을 7월 1일부터 시행<br>·대만은 타오위안 등 8개 공항, 중국은 상하이 등 5개 공항 개방<br>·왕복 18편 | 중국인 관광객 확대(1일 3천명 상한) 결정<br>·종전 비관광목적(사업, 유학생 등) 1일 1천명 상한               | 대만 기업의 대중 투자 상한을 순자산액의 40%→60%로 확대<br>대만 기업 및 외자계 기업 자회사의 대중 투자 한도 폐지(8월 1일 시행) |
| 위안화의 환전을 7월 1일부터 허용(1회 한도 2만 위안)<br>·중국에서의 환전은 푸젠성에서만 허용                          | 중국 본토 QDII의 주식투자 허용                                                      | 홍콩·마카오 시장의 H주, 레드칩에 대한 10% 상한폐지<br>대만 금융기관의 홍콩법인 경유 중국 증권회사 출자 인정               |
| 10월까지 화물 전세기편 개설                                                                  | 하반기 중 부동산투자 허용(5년 이내 소유권이전 금지)                                           |                                                                                 |
| <금후 실시예정, 시기는 미정>                                                                 |                                                                          |                                                                                 |
| 연말까지 전세기편의 평일 확대 및 정기편화<br>2009년 6월까지 완전 직항 노선화                                   | 중국인 관광객 수용을 마 총통 취임 4년차까지 1만명으로 순차 확대<br>본토 등기 기업이 아니면 대만예탁증권(TDR)발행을 허용 | 대만 첨단기술 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 규제완화<br>대만 금융기관(은행, 증권)의 중국 진출 허용                        |

## (중국과의 교류 확대로 향후 대만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 중국과의 교류 확대는 대만경제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

— 중국 관광객의 대만 유입에 따른 국내 소비 증가 및 관련 산업의 고용 확대 등 기대

- 대만 정부는 직항편 개설 및 방문 규제완화로 단시일 내에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약 600억 대만 달러(명목GDP의 0.5%)의 관광 수입과 4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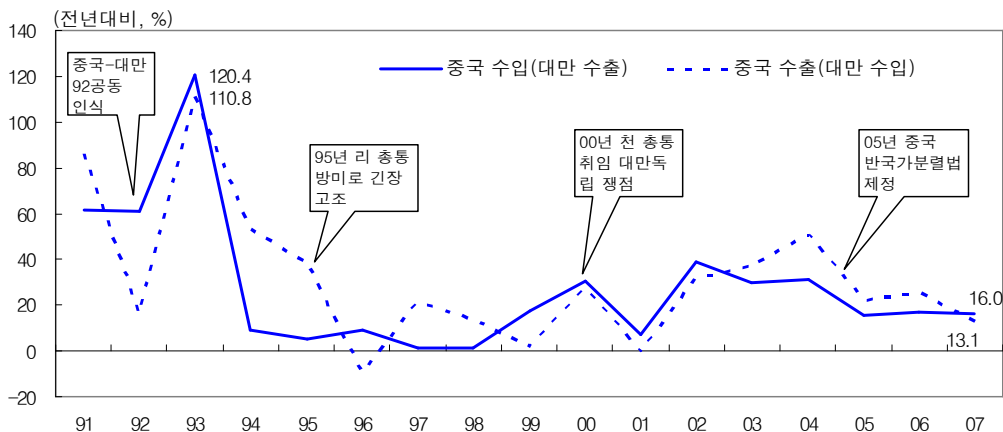
\* 마 총통 취임 후 1년간 중국인 관광객을 약 110만명으로 예상

— 대만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에 따른 자본재 및 중간재 등의 수출 증가 및 기업 수익성의 개선도 기대

- 자동차 및 가전 등 대기업은 이미 중국 진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며 향후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

· 대만의 대중 수출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호조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과의 긴장 발생과 더불어 부진

중국-대만 간 수출입 증감률 추이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자금의 대만 시장 유입 및 대만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등에 따른 대만 금융시장의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

- 1997~2007년 중 중국과의 교류 중단이 대만 주가의 상승세를 제약해 온 점에 비추어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주가수익률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

#### 아시아 주요 시장의 주가수익률(PER) 비교

| 대만(자취안) | 일본(닛케이) | 홍콩(항셍) | 중국(상하이) | 중국(선전) |
|---------|---------|--------|---------|--------|
| 11.3    | 15.9    | 13.3   | 21.7    | 26.7   |

자료: 홍콩 第一證券(08.8.5)

- 다만 중국 QDII의 투자한도는 대만 주식 시가총액의 0.2% 정도에 불과하여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항 개발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도 대만 경제의 성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

- 경제 활성화 및 중국 교류 인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① 철도 및 고속도로 확충 ②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 개발 등을 계획

#### 대만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br>(1~6월중) |
|-------------------------|----------|----------|----------|----------|----------|------------------|
| 실질GDP 성장률 <sup>1)</sup> | 6.5      | 5.8      | 4.2      | 4.9      | 5.7      | 6.1              |
| 광공업생산 증감률 <sup>2)</sup> | 6.0      | 6.8      | 3.8      | 4.9      | 7.6      | 9.7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3.7      | 1.3      | 2.3      | 0.6      | 1.8      | 3.9              |
| 실업률                     | 1.8      | 3.0      | 4.1      | 3.9      | 3.9      | 3.9              |
| 주가지수(加權) <sup>3)</sup>  | 5,173.73 | 4,739.09 | 6,548.34 | 7,823.72 | 8,506.28 | 7,523.54         |

주: 1) 2008년은 1~4분기

2) 1995년은 1997년 수치

3) 각 연말 기준(2008년은 6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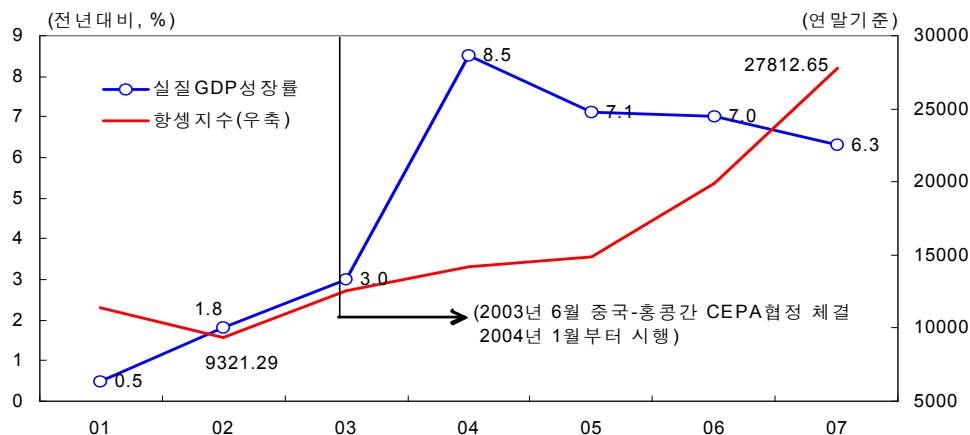
##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FTA도 추진한다는 계획)

□ 대만의 마 총통은 4월 23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진전될 경우 FTA 체결을 통하여 '중국대만공동시장'을 창설하겠다고 발언

— 이는 홍콩과 중국 간 CEPA 체결로 인적, 물적, 자금 교류가 확대되면서 홍콩의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인식한 발언으로 평가

- 홍콩의 경우 중국인 방문객의 급증으로 단기간에 민간소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 서비스 산업의 중국 진출 등으로 고성장을 지속

홍콩의 실질GDP 성장률 및 항생지수 추이



— 또한 중국을 의식하여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던 미국, 일본과의 FTA 추진 계획도 천명

- 또한 대만의 대중 사업 확대에 미국, 일본 등 외국기업의 기술력 및 자금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
- 이 밖에 대만 각지와 도쿄 하네다, 서울 김포, 상하이 홍차오 등을 연결하는 항공편을 정비하여 대중 사업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다는 전략

□ 다만 중국과의 교섭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이 돌출하거나 국내 반대여론이 높아질 경우 대중 관계 개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대만이 추진하려는 국제조직 가맹이나 FTA 체결 노력에 중국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대만 국내의 친중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 고조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특히 마 정권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견해('92공동인식')에 동의\*하고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협정 체결 시점에서 대표 명칭과 서명을 둘러싼 인식상의 차이가 정치적 쟁점으로 돌출할 가능성은 상존

\* 1992년 홍콩에서 대만과 중국이 '정경 분리'에 대해 토의할 때 구두로 '一中各表'(중국은 하나이나 해석은 각자 표명)를 확인한 것을 지칭하며 중국 신화사통신은 이에 대해 'One China, but each side is entitled to give different interpretations'로 표현

#### '92공동인식'과 관련한 시각차

| 대만 마 총통<br>(중국국민당)                                 | 대만 천 前 총통<br>(민주진보당)                                                | 중국 후 주석<br>(공산당)               |
|----------------------------------------------------|---------------------------------------------------------------------|--------------------------------|
| '하나의 중국'에서 중국은 '중화민국'을 지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은 없음 | '92공동인식'에 대해 ① 실제 존재여부, ② 구체적 내용, ③ 이에 따른 대중 협의 시 미래와 변화 모두 명확하지 않음 | '하나의 중국'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명언하지는 않았음 |
| '중화민국'은 독립국가                                       |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                                                       | '92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대만과 대화를 진행      |

○ 또한 대만 국내에서 마 정권의 정책이 너무 중국에 편향되었다는 여론과 함께 대중국 투자 확대 및 고도화에 따른 대만 국내산업의 공동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여론 조율도 과제

·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과 달리 현 정권이 입법원(국회 해당, 총의석 113)의 3분의 2 이상 의석(81석)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대만공동시장' 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